

이기는 삶

# 다시 한번 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장벽이다. 부딪쳐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자. 아기가 단번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서다가 넘어지고, 또 서다가 넘어지고, 또 서 보고 그러다 또 '쿵'하고 넘어지곤 한다. 이렇게 아기는 평균 2천 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운다.

2022년 6월 2일 있었던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친선 축구 경기에 앞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프리미어리그 2021/22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4대 1로 패했지만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세계 최강 브라질팀도 수비수 세 명이 협력 수비를 해야 할 정도로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프리

미어리그 최고의 득점력이 있는 선수임이 분명했다.

2022년은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맞물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득점왕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자부심을 선사해 주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만 득점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2등과 1등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지만 그 조금의 차이를 극복해낸 승자에게만 모든 영광이 집중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작다. 성공하기 위해서 100번을 시도해야 한다면 실패한 사람은 99번을 시도하고 말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 번 더 도전한다. 그 한 번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그 한 번의 차이가 고급과 저급을 구별하며, 그 1점의 차이가 시험에서 당락

을 좌우한다.

우상혁은 2022년 3월 20일에 있었던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 34cm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차지하였으며 2022년 7월 19일 있었던 세계실외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 35cm를 뛰어넘어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쾌거였다. 한국 사람은 어렵다는 육상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상혁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1cm를 더 뛰어넘기 위하여 얼마나 뛰고 또 뛰었겠는가?

자연스러움은 공들임의 결과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한 사람들이 도달한 높은 고지는 경쟁자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또는 경쟁자들이 쉬는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이다. 동계올

림픽이 끝난 후 이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쇼트트랙 선수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다.

남들이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 더 몸을 던진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포기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성공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한 번 더 시도했다면 성공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모두가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은 될 때까지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도전 하자.\*

## 영적 상징과 꿈 <27>

부제: 中에 대하여 2

- 지난 글에 이어서 -

일정 정도 레벨 이상의 경서나 경전 속의 말들은 종종 저자 스스로의 이해와 의도를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등장한 말 자체가 갖는 생명력과 깊이가 저자의 인간적인 층을 넘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이나 비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지자 스스로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자신 속의 하나님이 한 말하기에 정착 그 당시자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이지지(生而知之)란 말 또한 그렇습니다. 공자가 『논어(論語)』에서 논한 생이지지(生而知之)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상근기(上根機)를 일컫는 말임은 익히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러나 생이지지(生而知之)에는 공자(孔子) 스스로도 모르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생이지지(生而知之)

생이지지(生而知之)는 말 그대로 스스로 탄생(誕生)한 지식, 스스로 등장한 말 씬입니다. 우리는 무지의 겹테기를 뚫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 탄생한 지식·지혜가 생이지지(生而知之)입니다. 이는 내가 어디서 듣거나 공부한 것도 아닌 데 저절로 알게 되는 신기한 체험처럼 경험됩니다.

'오셔서 대신(代身) 해 주세요.'하는 말 김의 기도도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말씀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인데 이전엔 몰랐던, 주님이 하는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는 내가 듣고 있는 상대보다 먼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뜻을 실시간으로 깨닫게 됩니다. 듣는 자는 말하는 자가 원래 알고 있던 얘기를 하고 있다고만 느낍니다. 이것이 생이지지(生而知之), 나라는 의식을 뚫고 스스로 탄생(誕生)해서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완성된 형태의 생이지지(生而知之)도 있습니다. 이는 마귀나 나를 죽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나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 스스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아까처럼 대상화된 지식이나 지혜의 파편의 형태로 새로운 앎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으로 대체되어 이미 내가 알고 있으며, 그냥 내가 아는 자인 상태입니다.

이 순간은 나의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난(生) 하나님의 신이므로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아가며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앞의 존재, 지혜의 존재로 화(化)해 있음을 '이제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는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자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이제 그대로 아는 자일 뿐입니다.

생이지지(生而知之)는 이렇듯 한 조각의 지식이나 지혜의 형태로 출산(出産)되거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 주체영으로 거듭난(生) 하나님의 신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 태극(太極) =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人居天地之中 인거천지지중  
心居人之中 심거인지중  
心爲太極 심위태극  
太極爲性 태극위성”

“사람은 천지의 중심에 거하며  
마음(心)은 사람의 중심에 있나니,  
마음은 태극(太極)을 이루고  
태극은 성(性)이 되도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의 「관물의편 觀物外篇」임니

다. (영적 상징과 꿈 <26> 참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천지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열어도 열어도 안에서 인형이 또 나오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천지의 중심 자리에 사람이 있고, 다시 그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과 삼라만상의 중심지리의 중차대함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글의 백미(白眉)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마음(心)이 태극(太極)을 이룬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단일하지 않고 태극 즉, 양극(兩極)의 마음으로 쪼개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강절(邵康節) 자신은 몰랐겠지만, 이 구절의 참 뜻은, 사람의 마음이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이 양극단의 두 마음, 양극단의 두 신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소강절은 태극(太極)이라 묘사한 것이지요. 이간자께서 밝혀주시니 바 그대로, 태극(太極)의 실체는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아담과 해와였던 것입니다.

### 心 = 네 생물의 형상

자, 여기서 다시 마음 심(心)을 파자(破字)로 풀어보면 심(心) 자에 숨겨진 비의(秘意)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심(心)은 숨을 은(心), 또는 새 은(心) 자 주위에 점 주(·) 세 개를 찍은 글자입니다.

가운데의 은(心)은 '숨을 은 L', 또는 '새 은 L'의 뜻이니 은(心)은 저절로 숨어 있는 새로 풀립니다. 새는 하나님의 상징이니 은(心)은 숨어있는 하나님 즉, 갇혀 있는 하나님이며 그 자체로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뜻합니다.

은(心) 주위의 세 점(·)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나머지 네 생물인 인간, 걸 마귀, 속마귀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심(心)은 요한 계시록의 '네 생물' 즉, 제일 뒷면의 송아지(속 하나님)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인간, 독수리, 사자로 이루어진 네 생물의 형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영적 상징과 꿈 <19> - 영적 상징으로 본 네 생물 참조)

결국 마음 심(心)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 아담과 해와이자 태극(太極)이며, 묵시록의 '네 생물의 상형(象形)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태극(太極)이 성(性)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성(性)은 파자(破字)로 생명(生)의 마음(心)이니 하나님의 신입니다.

해서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에서도 사람의 마음(心)을 '마귀 소리'란 의미로 '魔音心'이라 했고 성(性)은 '성(聖)스럽고 품위(品位)있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성품(聖品) 성(性)이라 표현한 것이지요.

고로 '태극이 변해서 이루어진 성(性)'은 바로 '마귀 속에서 벗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쉬이 알 수 있습니다.

심(心)이 태극(太極)이 되고 종내 성(性)이 되는 이 변화는 무극(無極)의 하나님이 태초에 태극(太極)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황극(皇極)으로 회복되는 주역의 이치와 도 온전히 합일됩니다.

### III. 老子, 그 영원의 시(詩)

동양의 철학 중에서도 그 깊은 뜻을 자랑하는 도덕경(道德經). 그 시(詩)적인 아름다움과 극치의 압축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The Essence of Science of IMMORTALITY 영생의 과학(영생학)의 본질

영생학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학문이다.

▶ The Science of IMMORTALITY is the science that humans don't die and live forever.

영생은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이를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 Eternal life is possible by knowing the cause and reason of death and eliminating it.

영생학은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준다.

▶ The Science of IMMORTALITY reveals the reason why humans die.

뿐만 아니라, 영생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의문인 우주의 생성 원인과 생명체의 탄생 과정까지 알려준다.

▶ Furthermore, it uncovers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the process of birth of life, that i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umans.

따라서, 영생학은 모든 종교와 학문에서 제기하는 의문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학문이다.

▶ Therefore, the Science of IMMORTALITY is the science that can fundamentally approach and clearly solve the problems raised by all religions and studies.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는 죽음이 해결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

▶ All science and religions in this world can only be completed when death is resolved.

우리 모두 학문의 완성, 영생학을 공부하여 영생을 이루자.

▶ Let's all achieve eternal life by studying the Science of IMMORTALITY, the perfection of science.\*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이제 우리는 예의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의 이중구조' 라는 장문을 통해 노자(老子)를 들여다보려합니다.

### 도덕경(道德經) 1장 1절

원문] 道可道 非常道 도가도 비상도  
名可名 非常名 명가명 비상명

: 우리가 '도(道)'라 부르고 있는 도는 참 도(常道)가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참 이름(常名)이 아니다.

해석] 너무나 유명한 도덕경의 이 첫 구절은 이간자의 말씀과 짝을 맞추어 볼 때 비로소 그 진의가 드러납니다.

명(名)은 이름 붙이기 즉 'Naming' 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과 정체를 밝히고 정의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실 이름 붙이기, Terminology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무형의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학문과 철학의 기본 구조입니다.

해서 노자가 말한 명(名)은 현대어로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존주의 철학은 '부조리(不條理)'란 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철학체계이며 의학이나 심리학 또한 수많은 용어와 정의, Terminology의 집적체입니다.

만일 어떤 대상에 대해 상명(常名) 즉, 진짜 이름, 참 이름이 붙여졌다면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가 이미 온전히 밝혀졌다

는 것입니다. 해서 노자는 인간이 이제까지 정의한 이름 즉, 인간의 학문은 절대로 영원한 참 이름, 상명(常名)일 수 없다 못박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道)는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수행, 내지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道可道 非常道'도 '도가도 비상도' 이 말은, 이제껏 도(道)나 종교라 일컬어져 왔던 것들 또한 영원불변의 도(道), 상도(常道)와는 거리가 멀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덕경의 이 첫 구절은 이간자께서 단(檀)에서 서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마다 던지는 첫 일성(一聲),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 학문도 없었다.”

라는 선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자의 입을 통해 미리 말한 '道可道 非常道'는 수천 년을 관통한 이간자의 선언과 그 짝을 맞추며 비로소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마귀 종 상태의 인간이 만들어 왔던 종교와 학문들 즉, 도(道)와 명(名)은 참 종교도 참 학문도 아닙니다. 인간 '나에게서 나온 것'인 한, 그것은 참 도(道)도 참 이름(名)도 아니며 그저 말 씨꺼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나라는 마귀 껍데기를 부수고 해방되어 나온 중심(中心)의 도(道), 이기신 하나님만이 참 도(道), 참 이름(名)을 말할 수 있습니다.\*